

KIA 1차 지명 누구? ... 김도영·문동주 불꽃 경쟁

동성고 '특급 내야수' 김도영
진흥고 '강속구 투수' 문동주
12일 군산에서 주말리그 경기



동성고 김도영



진흥고 문동주

첫 전국대회를 끝낸 KIA 1차 지명 후보들이 주말리그 후반기 일정을 통해 경쟁을 이어간다.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 일정이 12일 시작된다. 광주 동성고와 광주 진흥고가 이날 오전 9시 30분 군산월명야구장에서 전라권 첫 경기를 치른다. 앞서 황금사자기 왕좌에 도전했던 동성고와 진흥고는 각각 32강과 16강전에서 쓴 패배를 기록했다. 두 팀은 주말리그에서 칼을 갈며 다음 전국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황금사자기를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동성고의 '특급 내야수' 김도영과 진흥고의 '강속구 투수' 문동주도 주말리그로 무대를 옮겨 경쟁을 이어간다. 앞선 대회에서는 문동주가 판정승을 거뒀다. 1회전부터 대회를 시작한 진흥고는 16강까지 올랐다. 문동주는 3경기에서 나와 스피드 어필 무대를 가질 수 있었다. 문동주는 대회 1회전이었던 2일 장중고와의 경기에서 5.1이닝을 던지며 6피안타 2볼넷 2실점을 기록했다. 잘 던지고도 패전 위기에 몰렸던 문동주는 팀의 역전승으로 구미 도개고와의 32강전에도 출전했다. 약체 도개고를 상대로 3.2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6탈삼진을 뽑아낸 문동주는 난적 경남고와의 경기에서는 투수와 1루수를 오가며 7이닝을 소화했다. 사사구 없이 7이닝 5피안타 3실점(1자책점)을 기록했고 11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팀이 2-4로 지면서 우승 도전은 멈췄지만 이번 대회에서 최고 154km 강속구를 뿌리면서 실력을 발휘했다.

김도영은 팀의 패배로 황금사자기에서 5타석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부전승으로 32강으로 직행했던 동성고는 청주 세광고와의 경기에서 아쉬운 판정 속 3연속 실책으로 흔들리면서 4-9 패를 기록,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김도영은 주말리그 전반기에 담장을 넘겼던 파워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점 중 하나인 스피드는 유감없이 보여줬다.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로 출루한 김도영은 상대 투수의 견제구가 빠진 사이 3루까지 내달린 뒤 역시 상대의 유격수 포구 실책이 나온 사이 홈까지 들어왔다. 특급 스피드를 의식한 상대의 실수 연발로 득점을 만든 김도영은 7회에는 번트 안타로 멀티히트에도 성공했다.

번트를 대고 1루까지 가는 데까지 채 3.60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는 KBO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스피드다. 우타자이지만 빠른 발을 활용해 김도영표 안타를 만들며, 특히 해외스카우트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운드와 타석에서 타고교 특급 스피드로 어필하는 문동주와 김도영. 투수로는 무게감 그리고 안정적인 피칭에서는 문동주가 좋은 점수를 받는다. 다양한 재능을 통한 활용도 그리고 희소성에서는 김도영에 무게가 실린다. 8월 23일 KBO 1차 지명회의에서 이름이 불릴 선수가 누가 될 것인가? 소리 없는 뜨거운 경쟁이 12일 다시 전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민

대타·대수비...박민, 끝날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린다

올 시즌 3경기 나와 데뷔 안타
"팀 막내 열정있는 모습 보이겠다"



매일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나올 때까지 긴장을 풀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 KIA 타이거즈 '야수 막내' 박민이 훈련 시작부터 경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있다. 야탑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프로 무대에 뛰어난 박민은 현재 KIA 야수진의 막내다. 막내답게 열정과 패기 넘치지만 기회는 많이 찾아오지 않고 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팀 상황상 박민은 5월 21일 엔트리 등록 뒤 10일 경기 전까지 3경기밖에 나서지 못했다. 이마저도 대주자와 대타로 세 번 그라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박민은 늘 긴장감을 가지고 경기를 주시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소득도 있었다. 1일 한화 원정서 1-9로 크게 뒤진 마지막 9회 대타로 나온 박민은 무려 15구까지

가는 승부로 볼넷을 얻어내면서 박수를 받았다. LG와의 6일 경기에서도 0-10 영봉패를 앞둔 9회말 역시 대타로 나와 이상영을 상대로 프로 데뷔 안타를 장식했다. 박민은 "매일 기다리고 있다. 그 한 번 나가려고 앉았고 몸 풀고 있다. 한 번 나갈 때 뭐라도 해야 다음에도 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며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된다"고 말했다. 가장 유심히 보는 부분은 수비다. 박민은 "수비할 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할까, 저 상황에 수비를 나갔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민은 프로에서 첫 시즌이 끝난 뒤 타격에 공을 들였다. 박민은 "작년보다는 나은데 아직도 부족하다"며 "내 스윙에 만족할 수 없지만 해볼 만하다고 본다. 아직 공을 많이 못 봤는데 익숙해지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15구 승부에 대해서는 아쉬움만 만족감 반이다. 박민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대타로 나왔다. 경기 도 크게 지고 있어 쉽게 아파되고 싶지 않았다. 안

타를치고 싶은 마음에 계속 방망이를 돌리다 보니 까 그렇게 됐다"며 "핑계일 수도 있는데 감이 떨어져서 반응이 안 된 것은 맞다. 내가 못 친 것이다. 찾아야 하는 공들을 못 쳤다. 그래서 빔맞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안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박민은 끈질긴 승부로 볼넷을 골라 걸어 나가면서 선배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박민은 "감이 떨어져서 빔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아나가서 좋았다. 선배님들도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웃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민에게도 앞으로의 상황은 쉽지 않다. 끝까지 가는 승부 속 부상으로 이탈했던 류지혁도 복귀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박민은 '한순간'을 위해 기다리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박민은 "작년에는 눈치 보느라 바빠했다. 올해는 형들,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눈치 볼 것도 없다"며 "팀의 막내로서 화이팅하면서 열정 있는 모습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벤티호 숨은 작전 ... 엘로카드 털어내고 A매치 데뷔하고

스리랑카에 5-0 대승 사실상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티켓 확보
김민재 경구 부담 없애고 송민규·정상빈·강상우·김영빈 데뷔전

'약체' 스리랑카를 격파하고 사실상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티켓을 확보한 벤티호는 승리만큼이나 귀중한 보너스 챙기기에 성공했다. 파울루 벤티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9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스리랑카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경기에서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상하이 선화)의 멀티 골과 19세 공격수 정상빈(수원)의 A매치 데뷔전-데뷔골 등을 합쳐 5-0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한국(승점 13·골득실 +20)은 13일 레바논(승점 10·골득실+4)과 2차 예선 H조 최종전에서 패해도 골 득실에서 앞서 조 1위를 차지할 수 있다. 각 조 1위는 최종 예선에 직행한다. 벤티 감독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04위의 약체인 스리랑카를 상대로 지난 5일 투르크메

니스탄전에 나섰던 11명의 선수 가운데 남태희(알 사드)만 빼고 무려 10명을 바꾸는 플랜B를 선택했다. 사령탑의 전술에 왼쪽 풀백 이기재(수원)는 A매치 2경기 만에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고,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한 송민규(포항)는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한국은 전반전에 김신욱의 멀티 골과 이동경(울산)의 득점을 합쳐 3-0으로 리드했다. 이동경의 전반 22분 골은 자신의 A매치 4경기 만에 터진 데뷔골이었다. 벤티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한 박지수(수원FC)를 빼고 김민재(베이징 궈안)를 출전시켰다. 지난 5일 투르크메니스탄전에 선발로 나섰던 김민재가 투입된 것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지만 후반 37분 반칙으로 경기를

받으면서 벤티 감독의 의도가 파악됐다. 2차 예선에서는 경구가 2개 누적되면 다음 경기에 결장해야 한다. 김민재가 자칫 13일 레바논과 2차 예선 최종전에서 경고를 받으면 최종예선 첫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김민재는 경기 후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가서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다 후반 37분 경고를 받아 레바논전 결장이 확정됐지만 최종예선에 대비한 '엘로카드' 부담을 털어냈다. 벤티 감독의 '숨은 작전'이었다. 벤티 감독은 그동안 벤치를 지켰던 선수들에게 A매치 데뷔 기회를 대거 줬다. 19세 공격수 정상빈은 후반 27분 김신욱 대신 투입돼 그라운드에 나선 지 4분 만인 후반 31분 이동경의 슈팅을 골 지역 정면에서 살짝 방향을 바꿔 팀의 5번째 득점을 책임졌다. 더불어 미드필더 강상우(포항)와 수비수 김영빈(강원)도 후반에 투입돼 A매치 데뷔의 기쁨을 맛봤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안방에서 1위 수성 나선다

13일 광양서 K리그2 부천과 경기

전남드래곤즈가 득점왕 경쟁에 불을 지핀 발로텔리를 앞세워 안방에서 1위 수성에 나선다. 전남은 오는 13일 오후 1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부천FC를 상대로 K리그2 1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15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발로텔리의 헤트트릭 덕분에 3-0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15라운드 경기 전까지 1위였던 대전하나시티즌(7승 3무 5패·승점 24)은 안양FC에 1-2로 패하면서 전남(7승 5무 3패·승점 26)과 승점 2점 차 3위가 됐다. 2위로 올라선 안양(7승 4무 4패·승점 25)과는 승점 1점 차다. 전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총총한 그물망 수비를 자랑하고 있다. 올 시즌 15경기를 치르는 동안 실점을 10으로 묶으며 최소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발로텔리가 고민이었던 화력에 불을 붙여 주면서 전남의 우승 도전에 힘이 실리게 됐다. 발로텔리는 앞선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전반 3분 공격을 시작으로 후반 10분 그리고 후반 40분에도 골을 터트리면서 K리그 무대 첫 헤트트릭을 장식했다. 팀을 1위로 다시 끌어올린 발로텔리는 15라운드 MVP에 이름을 올렸고, K리그2 득점왕 싸움에도 불을 붙였다. 발로텔리는 3골을 한 번에 몰아넣으며 시즌 7호골에 성공, 득점 1위 안병준(부산)을 두 골 차로 쫓고 있다. 발로텔리는 전남 공격의 핵심이다. 올 시즌 전남의 팀 유효슈팅 71개 중 14개(약 20%), 팀 득점 18득점 중 7득점(약 39%)을 발로텔리가 책임지고 있다. 특히 그가 골을 기록한 5경기 중 4경기에서는 전남이 승리팀이 됐다. 발끝이 달아오른 발로텔리가 13일 경기에서도 '최다실점(22점)' 중인 부천을 상대로 골 폭풍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